

# 사순절 묵상집



##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토니 올트맨 목사

누가복음 1:46-55

하나님의 자녀되신 여러분, 저는 제가 대림절 주제로 "기쁨"을 선택했을 때, 글 쓰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짧은 표현을 쓰고, 성구를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할 일이 끝난 것이죠. 그러나 "기쁨"은 어떤 이들에게는 찾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숨쉬는 때 들이마시는 공기 같이 항상 함께합니다.

제가 섬겼던 회중의 성도인 제인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기쁨은 그녀의 존재 자체와 섞여 있었고 이러한 기쁨을 타인과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다른 이들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제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기쁨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46-55의 마니피캇(Magnificat)에서 표현하는 기쁨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표현하는 기쁨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리한 인식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살살이 아시면서도 마리아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은총으로 인해 마리아의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니피캇에서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자신에게 맡겨진 특별한 역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것이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어떻게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말은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무한한 소망과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뿌리를 둔 깊고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메시아 예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순간은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뻐를 칠 것이며"(이사야 55:12). 이러한 기대는 마리아가 경험한 기쁨,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기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둔 기쁨을 붙잡읍시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비추도록 합시다. 마니피캇(Magnificat)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기쁨이 어떻게 우리 삶과 공동체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가져다주는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봅시다.

